

'우생순'의 감동은 계속된다

■스포츠 소재 영화 잇단 제작

한국 국가대표 여자 핸드볼을 소재로 제작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최근 '각본 없는 드라마'로 불리는 스포츠 소재로 한 영화들이 속속 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 개봉을 목표로 한창 촬영중인 '킹콩을 들다'는 여도를 소재로 한 영화, '킹콩을 들다'는 쓸 수 있는 건 힘밖에 없는 시골소년 영자가 88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의 시골 여중 역도부 코치인 이지봉을 만나, 여도를 통해 자신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그린 휴먼 드라마다.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 이범수가 코치 이지봉 역을 맡았으며 소녀 이미지의 배우주 조안나의 몸무게와 근육을 10kg 가량 늘리며 역도선수로 완벽 변신했다.

영국 브리틀대학에서 수학한 후 '태풍' 조감독으로 참여한 박건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킹콩을 들다'는 특히 영화의 주된 촬영지가 보성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여수출산중양초등학교에서 크랭크인 한 제작팀은 지난 1월부터 보성여중과 남중 체육관, 보성 실내체육관, 보성군청 등에서 촬영을 진행해오고 있다.

매력적인 캐릭터인 이지봉 코치는 순창여고를 전국 최고의 여도 명문여고로 만든故정인영 감독과 보성군청 여도팀 감독 김용철 감독 등 실제 여도인들의 삶을 조합해 만들었다. 여도 경기 장면의 촬영이 많은 만큼 유명 선수들도 카메라로 출현한다. 전병관·이배영 선수가 촬영을 마쳤고, 장미란 선수 등도 현재 섭외중이다.

'국가대표'는 동계 스포츠인 스키 점프를 소재로 한 영화로 1996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을 급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이다.

'국가대표'는 특히 최근 영화의 모델이 된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중국하얼빈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획득,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홍수 코치와 선수들은 촬영 전부터 배우들의 스키점프 훈련 트레이닝에 직접 참여했고, 영화 속 스키점프 장면에도 출연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국가대표'가 관심을 모으는 건 메가폰을 잡은 김용화 감독에 대한 기대 덕이다. '미녀는 괴로워'와 '오 브라더스'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은 안정된 연출력으로 기대감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출연진도 눈길을 끈다. '추격자' 이후 승승장구하며 현재 흥행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로 꼽히는 하정우를 비롯해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의 김지서, '커피프린스'의 김동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프로레슬링을 소재로 한 '더 레슬러' 역시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빛을 발하는 건 주인공 랜디 역을 맡은 미키 루크의 열연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손 편에 밀려 아깝게 남우주연상을 놓쳤지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당당히 트로피를 거머 쥐었고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현란한 테크니카와 소란심으로 1980년대를 주름잡은 최고의 프로레슬러인 주인공 랜디는 20년이 지난 지금, 심장이 상을 이유로 링을 떠나 식료품 상점에서 일을 하며 세월을 축내고 있다.

어느날 과거 최대 라이벌이었던 아이돌라가 도전장을 내밀자 그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무뎠던 채 그의 생애 최고의 레슬링 매치를 위해 링에 오르는데..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받은 부르스 스프링스턴의 노래도 곡에 감긴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킹콩을 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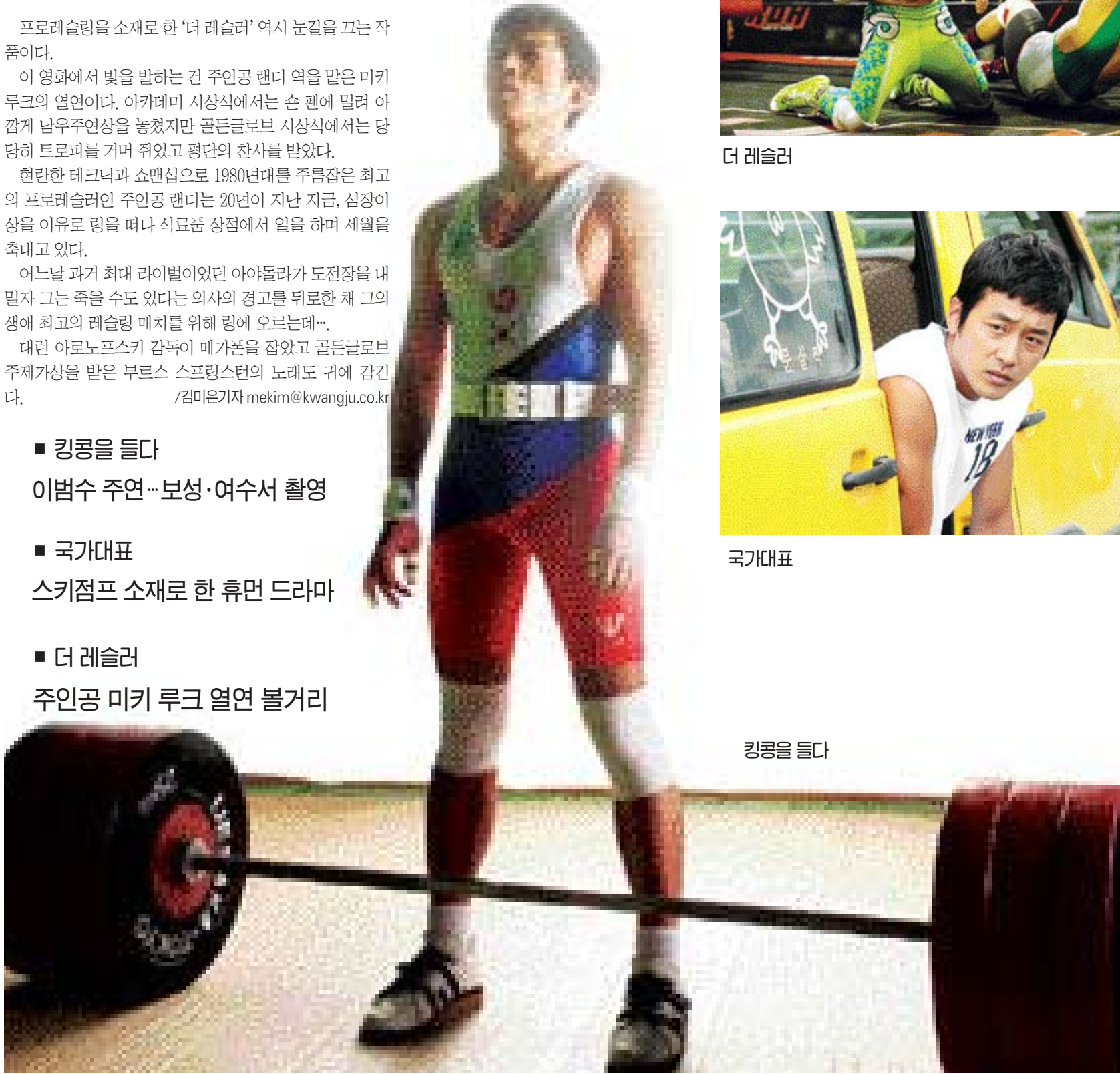
이범수 주연...보성·여수서 촬영

■국가대표

스키점프 소재로 한 휴먼 드라마

■더 레슬러

주인공 미키 루크 열연 볼거리



더 레슬러



국가대표

킹콩을 들다

새 영화 왓치맨

유명 만화 원작 배신... 음모... 액션 블록버스터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그래픽 노블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히어로 영화. 워낙 뛰어나고 복잡한 원작의 아성에 놀라 쉽사리 영화화가 되지 못하다 드디어 관객들을 만난다.

국가의 승인 없는 히어로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후 대부분의 히어



로들이 은폐를 선언하지만 로어세크는 신분을 감춘 채 왓치맨(파수꾼)으로서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오고 있다.

어느 날 과거 함께 활약했던 동료 '코미디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로어세크는 과거의 히어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살인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던 로어세크는 과거 '왓치맨'의 역할을 해온 히어로들을 엮어내는 거대한 음모가 있음을 깨닫고 히어로는 코미디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과 '히어로 킬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나선다.

CG를 활용한 액션과 드라마가 인상적이었던 영화 '300'의 감독과 각본을 맡았던 잭 스나이더가 메가폰을 잡았으며 제프리 리 모건, 빌리 크루델 등이 출연한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www.kjhr.com)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Text include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본점 (062) 227-9940 and 총장점 (062) 227-9970.

Larg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KJHR) with a grid of tables listing legal services and fees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서울, 경기, 광주, 전남, and 제주. Includes contact info: 062)351-8240, 010-7203-1100.